

## **방화동기에 의한 방화현장 분석(변사사건 중심으로)**

### **A Study on the Analysis of Arson scene by the Arson motive**

**최민석**

Min-Suk Choi

경기지방경찰청 화재감식팀

#### **1. 서론**

화재로 인하여 매년 약 400여명의 사망자가 발생하고 있으며, 사망의 원인으로는 대부분 화재인지·신고지연 등 대피실패로 인한 질식사 즉, 화재사가 대부분이며, 화재의 원인도 대부분 변사자의 행위와 관계없는 요인인 경우가 대부분이다. 하지만 화재원인이 인위적 요인에 의한 경우라면, 변사자와 직·간접적으로 관계되어 있는 경우가 많으며, 이러한 관계는 방화 동기가 무엇이나에 따라서 다르게 해석될 수 있을 것이다. 그러한 이유는 범죄자가 목적하는 바를 이루기 위한 의도된 행위가 현장에 적용되기 때문으로 본 연구는 화재현장에서 발견된 변사자의 상태와 연소특성이 방화동기에 따라 다른 특징이 있음을 제시하고자 하였다.

#### **2. 원인 분석 및 판정**

방화동기의 분류는 미국폭력범죄분석센터(National Center for the Analysis of Violent Crime, NCAVC)의 6가지 분류(Vandalism, 흥미, 복수, 범죄은닉, 이익, 과격주의) 등 국·내외 연구자들에 의해 다양한 각도로 분류되고 있으며, 이러한 분류는 현장에서 발견되는 방화범의 폭력적 행동이 어떠한 동기에 의한 것인지 판단하는 데 중요한 자료로 활용되고 있다. 방화의 동기는 방화범의 의도된 행위가 현장에 표출되기 때문에 현장에서 고유한 특징을 확인할 수 있을 것이다.

본 연구에서는 화재현장에서 발견된 변사자의 발견상태 및 현장의 연소형태가 동기에 따라 다르게 나타남을 현장 사례분석을 통해 해석하려 하였고, 범행은폐 목적과 자살 수단으로의 방화 현장에서 몇 가지 중요한 특징을 확인할 수 있었다. 범죄의 지능화와 과학수사 기술의 발전으로 범죄 흔적을 파괴하기 위한 목적의 방화가 증가하고 있는 추세이며, 앞으로도 계속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범행은폐 목적 방화는 범행 목적이 범죄사실 자체를 숨기거나 범죄자의 흔적을 파괴하기 위함이므로, 범행 목적물이나 자신이 접촉한 장소에 방화하는 경우가 많고, 현장에서 다른 범행의 흔적이 발견되기도 한다. 특징으로는 방화가 범행 초기부터 계획되어 있지 않아 촉진제 등 방화도구를 준비하기 보다는 현장의 가연물을 이용하는 경우가 많으며, 촉진제가 준비된 경우를 제외하면 대부분 시체와 근접한 부분에 있는 가연물을 이용하거나, 인위적으로 가연물을 적정한 후 방화하는 경우가 많았다. 또한 대부분의 시체에서 움직임의 행동이 없는 즉, 이미 사망한 상태이기 때문에 반듯한(대부분 누워있는)자세에서 발견되는 경우가 많았다. 자살 목적 방화의 경우, 스스로 목숨을 끊기 위한 극단적인 방법이므로 우발적 보다는 사전에 준비 되는 경우가 많았으며, 현장에서 방화도구가 발견되는 경우가 많고, 살아 있는 동안 이루어진 것이므로 비교적 불완전한 자세(몸에 불을 붙은 후 몸부림의 흔적)로 발견되는 경우가 많으며, 비교적 연소의 범위가 시체를 중심으로 한정된 경우가 많고 변사자가 연소 중심부에 있는 경우가 많았다. 그 외에 타살과 자살을 판단할 수 있는 특징으로 출입문의 파손이나 개방, 유서 등 자살을 암시하는 물건의 발견 등을 들 수 있고, 발견 시간에 있어서도 시간의 차이를 볼 수 있는데, 범행은폐 목적 방화의 경우 범인이 도주하면서 출입문을 개방하거나, 연소가 용이한 환경을 조성 후 도주하는 경우가 많아 비교적 빠른 시간에 화재가 목격되거나, 시간에 비하여 소훼정도가 심한 상태로 발견되는 경우가 많으며, 자살 목적 방화의 경우 대부분은 출입문이 잠겨 있고, 연소의 범위가 한정되어 있어 화재사실을 상당시간이 경과한 후에 알게 되거나, 심지어 자연 소화된 후 발견되기도 하였다.

그림 1은 살해 후 화재로 위장하기 위하여 방화한 사건으로 시체 오른쪽 이불에 라이터로 방화하여 시체가 소훼되도록 하였다. 그림 2는 촉진제를 몸에 뿌리고 자살을 위해 방화한 것으로 변사자를 중심으로 주변으로 확산된 연소형태가 식별된다.



그림 1) 범행은폐 목적 방화



그림 2) 자살 목적 방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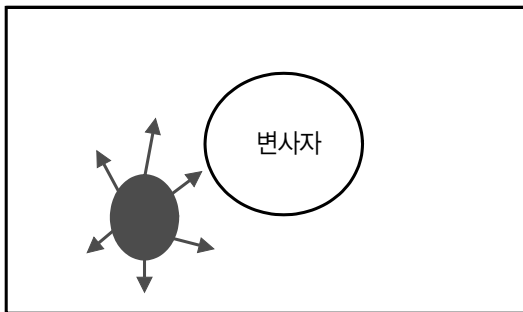


그림 3) 범행은폐 목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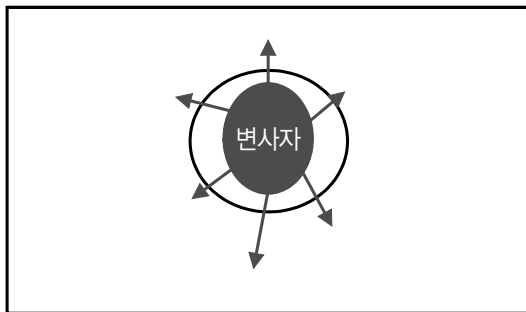


그림 4) 자살 목적 방화

그림 3처럼 범행은폐 목적 방화의 경우 시체에 직접 착화시키기 보다는 시체와 근접하여 있는 가연물에 착화하는 경우가 많은데 이는 시체가 쉽게 연소되지 않을 것이며, 입고 있는 의류에 착화시키더라도 쉽게 꺼질 수 있다는 생각 때문일 것이다. 자살 목적의 방화의 경우는 주목적이 자살을 위한 것이므로 주변 가연물을 이용하기 보다는 자신의 몸에 직접 불을 착화시키기 위해 촉진제 등을 사용하는 경우가 많았다. 실제로 분석된 사례에서도 타살의 경우 연소 중심부가 시체 주변에 있는 연소가 용이한 가연물인 경우가 많았으며, 자살의 경우 시체가 연소 중심부 범위에 속하여 있는 경우가 많았다. 하지만 이러한 방화특성 역시 방화범의 행위나 주변 환경에 따라서는 다르게 나타날 수 있으므로 이러한 연소 특성을 모든 방화현장의 일반적 경향이라고 볼 수는 없으며, 출입문 개방, 금품 물색, 시체 손상 및 변사자의 행적 등 정황증거를 종합하여 판단하여야 할 것이다.

### 3. 결 론

방화동기가 무엇을 의도하였는지가 현장에도 적용되는 경우가 많으며, 이러한 연소 특성을 확인할 수 있으며 이러한 분석결과가 중요한 수사단서가 될 수 있을 것이다. 하지만 연소형태에 의한 자타살의 판단은 부검 등에 의한 사인 규명이나, 변사자의 행적 등 정황증거 분석결과 들에 의하여 지지될 수 있으며, 향후 방화동기 별 연소 특성에 대한 연구가 지속되기를 기대한다.

### 참고문헌

- 1) Dehaan, john D, Kirk's fire investigation, 2007
- 2) Barry A. J. Fisher, Techniques of Crime Scene Investigation
- 3) John E. Douglas, Crime Classification Manual
- 4) NFPA 921, 2008
- 5) 최민석, 방화수법에 의한 동기분석 연구, 2010
- 6) 이승훈, “화재조사 이론과 실무”, 2008